

“나눌수록 내 욕심 비워져

부산 불자 기업인 최효섭 사장 (주)효원개발



최효섭 사장은 ... 1961년 12월 29일 대구에서 태어나 봉화에서 성장했다. 1999년 부산에서 ㈜대원플러스 건설 법인 설립에 동참하고 2010년 ㈜현원개발을 설립,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부산 워브포세이돈, 부산 워브더 제니스 및 명지 투산워브포세이돈 등 부산의 랜드마크라고 불릴만한 건축물을 지었다. 부산 사랑의 연탄나누기, 복지관 쌀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불교관련단체 등을 후원하며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차량이 은은하게 배인 사무실에서는 불경 읽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렸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주)효원개발. 최효섭(55) 대표이사가 일하는 공간이었다. 1월2일 새해가 밝아오자 기자가 처음 찾은 곳이기도 했다.

천수경 외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던 최 사장은 이윽고 기자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따뜻한 차를 내밀며 그가 담담하게 내뱉었다.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사로 나갈 만큼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요...”

햇수로 13년째 접어든 보시행. 각종 단체에서 준수 심개의 감사패를 비롯해 국회의원상과 학교 후원금 전달 덕분에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받은 국가재건 훈장(모하 세네이벳)은 최 사장의 그동안 행적을 증명하고 있었다.

기회될 때마다 나눌 수 있을 때마다 실천했던 것뿐인데 자연히 따라붙는 주위 칭찬이 그는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나눔은 집착을 버리기 위한 수행이었을 뿐, 그 덕에 오히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 자신이 더 많은 걸 얻었다며 최 사장은 씩스럽게 웃었다.

국밥집에 날아든 독거노인나눔 전단지가 인연

그를 취재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지난해. 불국토에서 운영하는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불자 기업인 한 분이 십 년 넘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전화를 받은 후였다.

최 사장이 처음으로 양정재가노인센터와 인연을 맺은 건 2002년 부산 양정동에서 아파트 건설을 진행할 때였다. 복지관 인근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추석맞이 독거노인 나눔 행사 전단지가 바람에 날려 식당에 들어왔다.

“전단지를 보자마자 노인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쌀이래요. 그래서 20kg짜리 쌀 100포를 전달했었습니다. 그 후 복지관에서 나눔 행사를 할 때마다 필요물품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인연이 되고 있네요.”

최 사장은 지금까지 쌀, 김치를 비롯해 장학금과 자동차까지 어디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나눔에 앞장서왔다. 씩씩이도 컸다. 지난해 울산 정토사 관자재 요양병원이 설립될 때는 1억원에 달하는 불교 용품을 보시하고 향나무 10여 그루를 직접 공수해 후원했다. 2012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부산지역 복지관 12곳에 매달 약 1천만원 가량의 쌀 170여포를 전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도 매월 25만원씩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단칸방에서 깨진 천원의 가치

그가 당시 국밥집에서 주저없이 전화기를 꺼낼 수 있었던 것은 단칸방에서 주린 배를 움켜쥐며 지독한 외로움을 겪어낸 적이 있어서였다.

건설 일을 했던 최 사장은 IMF 여파로 1999년 극심한 시련을 겪었다. 배신과 사기로 사업이 망하면서 방 한구석에서 울분을 삼키며 배고픈 시간을 보낸 것이다.

“그 때 스스로 약속을 했죠. 나중에 돈을 벌면 꼭

베풀고 살겠다고요.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란 것이 어째서 필요하지 절실히 않았어요. 나에게 천원은 별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을 수 있다는 것도요.”

누구든 결심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가 힘들었던 시절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바로 어머니였다.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의 나눔행을 어릴적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던 것이다.

어머니야말로 참된 불자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도 어머니는 이웃들 음식을 챙기고 난 후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저 음식은 옆집 혼자 계산 할머니께 먼저 드려야 하니 손 대기 말라고 하시면서요. 어릴 때 원망도 많이 됐죠. 늘 배고팠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왜 과수원에서 나온 과일 중 좋은건 팔고 멧등거나 썩은건

13년째 보시행...감사패·훈장 등 수십개

매달 1천만원씩 지역사회 후원

“나눔, 집착 버리기 위한 수행의 방편”

하루 4시간씩 108배 및 경전 독송

IMF 겪으며 나누고 살기 발원

이웃 챙기던 어머니 보며 감화

소외학생 위한 ‘불교대안학교’ 설립이 꿈

가족들이 먹잖아요. 그런 경우랑 비슷하다고 하면 될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다 우리한테 좋은 걸 남한테 주는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거죠.”

텃밭 아재부터 연탄, 쌀까지 주저없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어머니였다. 봉화 축서사 무여 스님 불제자로 매사 이웃을 살뜰히 보살피고 지극하게 기도를 리던 어머니에게서 최 사장은 참된 불자의 모습을 보았다.

추운 겨울에는 얼음을 깨서라도 썼고 짚에 갈 정도로 불심이 남다른 분이였다. 어머니의 정성을 곁에서 고스란히 배웠다. 최 사장의 어머니 김정순(80) 노모는 아직도 나눠주는 걸 좋아하신다.

“지금 그 때를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게 어머니 생각이었죠. 혼자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웃과 더불어 살 때 저 역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걸요.”

이웃과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자신의 욕심이 비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최 사장은 보시는 곧 자신을 비롯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했다. 사람은 혼자사는 것이 아니라는 자명한 진리를 그는 몸소 체득한 것이다.

기도 통해 성공 기업 일궈내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사업은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현재인 최삼섭 회장과 함께 (주)대원플러스 건설을 이끌며 자회사인 (주)효원개발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 대원플러스건설은 부산 해운대 마린 시티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층(82층)에 속하는 '위브더 제니스'를 지었다. 지진과 화재에 대비한 안전설계 및 디자인으로 세계3대 디자인 공모전 중 '레드닷(RED-Dot)' 건축부문 본상을 받기도 했다.

최 사장은 끊임없이 사업을 성공시키며 회사를 부산의 대표적 기업으로 일구어내고 있는 중이다. 성공가도에 있는 그지만 자만하지 않고 기도와 수행으로 꾸준히 자신을 내려놓는다.

“어려울 때 결심한 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제게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눌 것이 없었을 때는 욕심부릴게 없어서 기부하는 게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결심을 거듭 해야 합니다. 계속 욕심을 버려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워서 점점 못주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잠시 왔다가 갈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나는 그 차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거듭 되새기죠.”

인간이라서 가질 수밖에 없는 욕심앞에서 잠시 갈등하다 결국 인간답게 살고 싶어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

부단히 비워내기를 반복하는 최 사장은 사업이 잘 되고 번창 할 때는 기도 시간을 더 늘린다고 했다. 8년 전부터는 108배를 기본으로 매일 4시간 가량 법화경과 천수경, 수구성취다라니경을 독송한다.

“절과 기도를 하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란 잘되고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착이 생길수록 기도를 통해 비워내야 한다는 걸요.”

기도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 그는 기도를 통해 지혜, 용기 그리고 희망을 얻는다고 했다. 사업하다 난관에 봉착할 때면 기도를 통해 심신을 고르고 용기와 희망을 몸에 새긴다.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게 해주는 지혜는 법이다. 그 가운데서 승수한 것은 바로 ‘평온’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 때가 많아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도를 하고나서부터는 그런 증상이 깔끔하게 없어졌다. 마음의 집착이 사라지니 잔걱정이 줄고 위기가 닥쳐도 평정을 유지해 큰 탈 없이 넘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눔원칙...정성 다해 꼭 필요한 곳에

최 사장의 나눔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확대됐다. 직원들은 겨울에는 연탄배달을 위해 두팔을 걷어부치고 때때로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발굴해내기도 한다. 직원 권경삼(52) 과장은 “지금이야 기업의 사회공헌이 당연시되지만 10년전만 해도 조그만 기업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생소한 일이었다”며 “나중에 사장님 돌아가시면 몸에서 사리가 나올 꺼라고 직원끼리 농담할 정도로 부처님이 따로 없다. 사장님이 그저 존경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유승일(47) 과장 역시 “불품 전달을 할 때마다 직접 이웃들에게 주러가는 기업은 우리 밖에 없을 거”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 1리 58번지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

제3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염불경력 52년 팔공산 염불소리 최종 보유자!



음반제작, 사모곡, 참회곡, 예불천수경, 회심곡, 백발가, 장엄염불 (시판중)

- 교육과목 :
 - 요령묵타사용법 :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전시식, 화엄시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구병시식, 시련, 대령관곡, 시왕불공, (상가)사다림염불, 봉송편, 방생편, (각축원편)
 - 작 법 : 복청계, 천수바라, 화 의재바라, 오공양작법(별도)
- 교육과정 : 전과목 10개월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양) 1월 28일 (음) 12월 9일 (수요일) 개강
- 교육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교재는 무료입니다.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문의사항 : 교육원으로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 문의전화 : ☎ (053) 781-4200.
 - H · P 010-7647-0108, 010-2542-2227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 교육원장 동현 합장

... 머물다 갈뿐 내 것 없어



2013년 한솔장애인학교에 교육 기구와 자전거, 장학금 등을 지원했다.



부산은행과 함께 지역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개설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법인 불국토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국회의원을 받기도 했다.(사진 맨오른쪽이 최효섭 사장)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 다마스 자동차를 기증할 때는 빨리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라는 의미로 8525이라는 번호판을 직접 택해 전달했다.

라며 최 사장의 정성에 감탄했다. 덕분에 직원들은 반강제로 시작한 봉사활동에서 점차 보람을 느껴가고 있다. 덩달아 절에 가는 일이 편해졌다는 직원들도 있을 정도다.

최 사장의 나눔에는 원칙이 있다. '작은 것을 주더라도 정성을 다해 꼭 필요한 곳에 주자'는 것이다. 후원품만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이란 시설이든 직접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직접 선물을 건네듯 정성을 쏟는다.

복지관에 다마스 봉고차를 기증할 때도 번호를 직접 받아다 줬다. "빨리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라는 의미로 '8525'이란 번호를 택한 것. 부산 사투리로 '빨리 이빠이(많이)'라는 뜻이다. 또한 배부른 사람에게 고기를 주면 안 된다는 것도 그의 규칙 중 하나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나누다 보면 욕심이 많아져서 저를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은 보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욕심을 채워 준 것 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지혜가 아니죠." 사업을 하며 관련 문서풀더가 많아질수록 그가 관리하는 나눔 풀더 역시 많아진다. 어딘가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인근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꼭 찾아보기 때문이다. 부산 명지에 아파트를 건설 할 때는 해당 지역에 부산 한솔장애인 학교가 개교한다는 것을 알고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기구와 자전거, 장학금 등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부산 각 지역에서 공부방 개설 등 교육 지원에도 꾸준히 나서고 있는 덕에 2013년에는 제6회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교육메세나탑은 부산시에 한 해 동안 1억원 이상 교육경비를 지원한 기업·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학교서 법 파주며 살길 발원 앞으로 최 사장은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불교 대안학

교'를 짓는게 꿈이다.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학생들은 알고 보면 좋은 마음 발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싶어하므로 그 학생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형성해주느냐에 따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명상과 더불어 자신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최 사장의 소망이다.

그 학교까지 짓고 나면 그는 아주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물론 그때도 나눔은 계속될 것이다.

"항상 직원들에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나를 찾으려면 밥주는 곳을 찾아보면 될 거라고요. 어디 선가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한아홉씩 퍼주며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진짜예요."

갖 자는 법만큼이나 말간 얼굴로 최 사장은 환하게 웃었다.

부산=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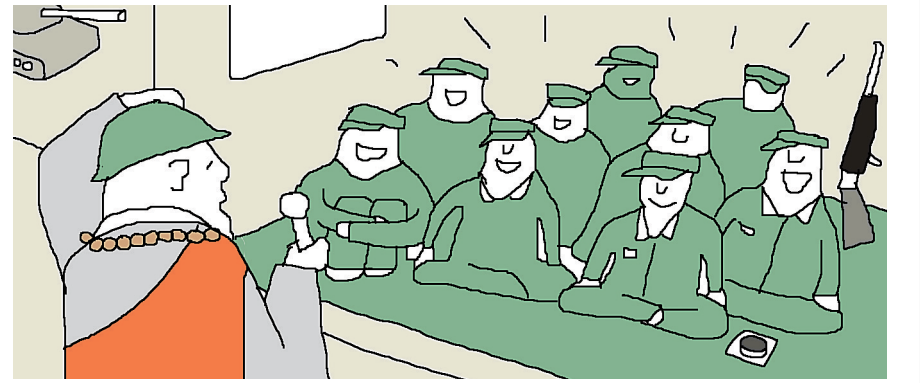
"법당에 와서 졸도록 해요"

하동 쌍계사에서 승가대학을 다니던 시절 사십반이 되었을 때 워낙 스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워낙 스님이 담당하던 사천 군부대 지도법사 소임을 이어서 맡으라는 것이었다. 수련회 습의사는 여러 번 했지만 법회를 직접 주관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약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군부대를 찾아갔다.

예불을 마치고 법문시간이 되어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모두들 굳이잡힌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병사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웃으며 나의 군생활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됐던 부처님 말씀을 전

병사들도 동감한다는 듯 웃음을 보였다. 실제로 병사들이 법당에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쉬기 위해서이다. 내무반에 있으면 고장들이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고 여러가지 율령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법당에서 차려주는 간식을 먹고 법문시간에 살짝 조는 것이 낫았을 듯 후식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더운 여름 날 냉방도 잘 되지 않는 법당이 많은 병사들이 앉아있으면 그 열기로 더욱 뜨거워지기 때문에 졸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저절로 졸음이 오게 마련이다. 나는 병사들에게 졸더라도 내무반에서 고장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당에 나와서 졸라고 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당이 편안한 곳이 되어야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박구원

해주었다. 누구나 겪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였기에 병사들도 감정이 이입되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고 마이크를 내려놓으니 신도님들과 병사들이 박수를 쳐 주었다. 나는 첫 시간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안도의 숨이 저절로 나왔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군법당 가는 날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날, 그 날도 어김없이 시간을 맞춰 법당에 들어섰는데 병사들이 반이 넘게 졸어있었다. 의아한 마음으로 신도님들께 물어봤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 주에 법회시간에 날이 많이 더워서 병사들이 거의 다 졸았는데 법문을 하시던 스님께서 그렇게 졸으면 법당에 나오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다는 것이었다.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당시 이야기하는 시간에 모두 졸고 있으니 보기 거북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병사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법회가 시작되고 예불을 마친 후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나도 훈련병 시절에 법회에 가면 법문을 듣기 보다는 조는 쪽에 가까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냈다.

그 후로 내 시간에는 다시 많은 병사들이 찾아왔다. 대부분 졸다가기도 했지만 법당에 가득 들어선 병사들을 보며 흐뭇했다. 간혹 전역한 병사로부터 잘 지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내가 더 반가웠다. 그 친구들이 매일 절에 다닐 수는 없었지만 뭔가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나처럼 다 절에 찾아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요즘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힐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를 힐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산을 찾기도 하고 명상음악을 듣기도 한다. 그런 비종교인들도 절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서게 해야 한다. 물론 부처님을 모신 절은 부처님에 대한 예경과 수행을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제만 너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법당이 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시간이 진정한 힐링을 법당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한다.



수안 스님 (前 백암사 포교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대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통운반차의 선구자! 큰우테크주**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워 옵션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동소 KW-BS200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재수 운반, 고소 연등 설치

전지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전범패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처명)

명품승복(가사전문)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 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흥가사를 수하시니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пам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박만복(활안수지사) 합장

반 수가사 (3пам 가사) 특징

- 1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2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 3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 (제일시장 내)